

지역 소식통

정읍시, 전북 안전대진단 평가 우수기관 선정

정읍시가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시·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받았다.

시는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37일간 66개소를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해 총 25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보수·보강 등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위험 요소를 해소했다.

주요 점검 분야는 건축 분야(아파트 등 40개소)와 생활·여가 분야(아영장 등 3개소), 환경·에너지 분야(유해 화학 취급시설 3개소), 교통시설(다리 9개소), 기타시설(저수지 등 11개소) 등 총 5개 분야다.

시는 효과적인 진단을 위해 자율안전 점검 실천 운동을 추진, 가정 내 자가 점검 확산에 기여하는 등 점검 실효성 확보 노력을 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소방 분야의 민간 전문가 15명을 투입해 전문적인 점검을 시행해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한 부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안전대진단 평가 우수기관 선정

부안군은 전북도가 주관한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시군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 8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추진한 국가안전대진단의 안전점검 실효성 강화, 자율안전점검 확산, 보수·보강 등 결과 공개, 우수시책 등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통해 종합적으로 진행됐다.

군은 다중이용시설 및 군민을 대상으로 자율안전점검표를 배부하는 등 자율점검 실천운동을 적극 유도하고 민·관 협업을 통해 안전취약시설 160개소를 차질 없이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안전취약시설 점검은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을 통해 진행돼 39개소는 보수·보강 대상으로 파악돼 군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일터에서 행복한 장애인!’

부안군 직업재활시설 ‘바다의 향기’, 장애인 일자리 창출 앞장

장애인이 우리사회에서 당당한 구성원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부안군 ‘바다의향기’(시설장 조상완)는 부안을 봉두길 52에 자리 잡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근로장애인 30명, 비장애근로인 6명, 종사자 11명이 부안의 청정해역에서 채취한 김 원료로 조미김 제품을 생산·판매 하고 있다. 2011년 운영 시작부터 지금까지 11년 동안 단 1명의 근로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하지 않은 점에서 경영 마인드를 짐작할 수 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수출 물량 격감, 코로나19로 인한 매



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직업재활이 장애인복지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지역 업체인 삼해상사와 지속적인 업무 공조와 더불어 품질 보증을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국산 참기름 사용, 저염

도, 유통기한을 짧게 하는 등의 경영 전략으로 연매출 11억원을 달성하였다.

근로장애인이 일터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초기면접에서 적성검사와 실습으로 적정 업무를 배정하고 능률성이 향상된 근로자는 다른 직장으로 연계하고 있다.

‘바다의향기’를 수탁 받아 운영하는 부안정회(대표이사 유정호)는 11년 동안 ‘바다의향기’를 건설하게 운영하였으며 2021년 12월 공모를 통하여 다시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면서 2026년까지 ‘바다의향기’를 더욱 혁신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남연침구(대표 김광철)는 지난 29일 부안군청을 방문해 후원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하여 이불 50채(400만원 상당)를 기탁하였다.

“소외된 이웃들에 큰 도움이”

부안 남연침구 김광철 대표, 부안군에 이불 50채 기탁

남연침구(대표 김광철)는 지난 29일 부안군청을 방문해 후원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하여 이불 50채(400만원 상당)를 기탁하였다.

남연침구는 부안군 행안면 농공단지에 위치한 침구 제조 및 도매 전문 기업으로, 1992년 메일베개 공장 ‘부김훈수’로 설립되어, 2009년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는 등 3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는 업체이다.

김광철 대표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겨울을 보낼

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모두가 힘든 시기에 기탁해주신 이불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잊지 않고 돌아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화답했다.

한편 김광철 대표는 올해 4월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부안군에 마스크 5만장을 기탁한 바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희망 2022 나눔캠페인’ 모금 목표액 1.9배 달성

정읍시, 오늘까지 시청·읍면동주민센터·도내 언론사서 모금 접수

정읍시가 지난 30일 ‘희망 2022 나눔캠페인’ 모금 목표액의 두 배를 상회하는 모금액이 모여 조기달성 했다고 밝혔다.

정읍시는 지난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나눔, 모두를 위한 사회백신이라는 슬로건으로 62일간의 ‘희망 2022 나눔캠페인’ 대장정을 진행 중이다.

현재 정읍시에는 목표액의 1.9배에 달하는 6억 7,500만원이 모금됐다. 2022년 캠페인 모금 목표액은 3억 5,500만원이다.

정읍시청 분관 출입구에 현재 모금액을 나타내는 ‘사랑의 온도탑’이 설치돼있다. 사랑의 온도탑은 모금 목표액의 비율을 온도(℃)로 표현해 현재 190℃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읍시가 지난 30일 ‘희망 2022 나눔캠페인’ 모금 목표액의 두 배를 상회하는 모금액이 모여 조기달성 했다고 밝혔다.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상황을 감안해 목표액을 작년과 같이 동결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위기 극복 의지와 애환

심, 성숙한 시민의식이 빛을 발하며 기부 행렬이 성황리에 이어지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올해 특별교부세 15개 사업에 45억 확보

정읍시가 올해 행정안전부로부터 15개 사업에 총 4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이는 민선 7기 들어 가장 큰 규모로 지난해와 비교해 무려 2배 이상인 약 25억원 가량이 증가한 액수다.

특별교부세는 특별한 재정 수요나 각종 재해 등 예측하지 못한 재정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로부터 그 용도와 목적에 맞게 재정 수요를 보전받는 재원이다.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상반기에 국도 1호선 진출입로 개설 10억원과 지역 주도형 경제 활성화 지원 4억원, 내장 추령교 보수공사 3억원, 어르신 백신접종 편의를 위한 사업 등 총 20억 4,500만원이다.

또 하반기에 하모교 보수공사 6억원, 국도 1호선(용호교차로) 진출입로 개설 5억원, 유창아파트 주변 도로 확·포장공사 5억원,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사업 4억원 등 총 20억

4,400만원을 확보했다.

여기에 추가로 안전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사업으로 3억5천만원을 추가 확보해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살릴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세출 절감 및 공기업 평가’에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며 인센티브로 1억 3,800만원을 추가 재원으로 확보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농축식품부 ‘농촌협약’ 체결에 행정력 집중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도전하고 있는 고창군이 협약 체결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고창군은 지난 29일 군청 상황실에서 이주철 부군수를 비롯한 농촌협약 협업부서 팀장들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용역수행업체, 관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협약 행정협의회를 열었다.

행정협의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3개 분과(농촌정주환경개선, 농촌경제 활성화, 농촌공동체 역량강화) 10개 관련 부서 17명의 담당팀장으로 꾸려져 농촌협약 연계사업 발굴과 사업계획 협의·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농촌협약은 해당 지자체가 직접 생활권에 대한 발전 방향을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통해 5년간

국비 최대 300억원을 지원받아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도록 설계된 제도다.

이날 회의에선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보고하고, 부서 간 연계사업 발굴과 사업 추진 관련 협의·조정 등이 이뤄졌다.

군은 향후 농촌협약 대상지 선정을 위해 행정협의회와 농촌협약위원회, 농촌협약지원센터 회의 등을 진행한다. 다양한 방식의 주민설명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사업계획에 반영해 고창만의 특색을 담을 계획이다.

고창군 이주철 부군수는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촌 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겠다”며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으로 내년도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ijmaeil.com에서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